



폭우에 폭염...채솫값 초강세

3주 사이 적상추·청상추 각 107%·116% 급등
배추 47%·시금치 82% '경증' 밥상 물가 비상

7월 들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채솫값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마 이후 폭염·태풍 등 이상기후가 농산물 가격 추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밥상 물가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역 적상추 소매 가격은 100g에 2천343원으로 이달 1일 1천130원보다 2배 이상(107.34%) 상승했다.

청상추 소매 가격도 100g에 같은 기간 1천367원에서 2천933원으로 116.02% 급등했고, 깻잎은 100g 2천363원에서 2천753원으로 16% 올랐다.

볼과 3주일 사이 적상추·청상추 모두 100% 넘게 가격이 올랐다. 평년과 비교하더라도 적상추는 46.2%, 청상추는 7.78%나 치솟았다.

방울 토마토는 1일(소매 기준) 1kg 7

천980원에서 19일 9천940원으로 24.56% 상승했고, 열무도 같은 기간 3천253원에서 5천597원으로 72.05% 올랐다.

배추 1포기는 같은 기간 3천770원에서 5천547원으로 47.13%, 시금치 100g은 1천75원에서 1천960원으로 82.32%나 뛰었다.

이와 함께 불철 작황 부진과 여름무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무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비축한 무를 시장에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호우로 산지 작업이 어려워져 하루 방출량을 70에서 130으로 늘렸다.

반면, 제철 과채류인 수박, 참외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5%, 13.8% 가량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숭아 역시 이달 중순 기준 소매 가격이 10개에 2만932원으로 1년 전 대비 16.1% 저렴하다. 포도도 출하량 증가로 1년 전보다

24%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사과도 이달 중순 햇과일 출하가 시작되고 막바지 저장 물량 출하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과일류의 경우 생산이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돼 가격도 안정돼 있는 것과 달리, 채소류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하는 데 기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상추 가격 상승은 주산지인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피해 지역 재배시설 복구와 재정식(재파종)이 진행되고 있어 수확까지 2-3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달 초순 이후가 돼야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도 "저온에서 잘 자라는 상추는 여름철에는 키우기 어렵고 비로 인해 짓무르고 잎이 떨어지면서 출하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태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107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발표 직후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AFP=연합뉴스

바이든 사퇴...美대선 지각 변동

3개월 앞두고 구도 급변...민주 후보 선출 절차 원점
토론후 사퇴 압박 24일만에 백기 "해리스 공식 지지"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이 11일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관련기사 8면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 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 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

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 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발단이 됐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는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백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까지 30여명의 상·하원 의원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발이 묶이는 등 약재가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당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벅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등을 돌리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TV 토론 2일 만에 백기를 들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제이미 해리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장성 '중소 특별지원지역' 지정...조세 감면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입주 동화농공단지 등 4곳

대유위니아 계열사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동화농공단지 등 장성지역 4곳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인한 장성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 규모만 57억원이 넘는다는

전남도는 22일 "경영 위기에 빠진 산업단지나 기업에 조세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다양한 우대 혜택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장성 4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 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밀집지역 지표는 매출액·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역산업 지표는 산업집적도, 산업생산실적, 지역경기 지표는 사업장 수, 공장 등록현황 등이 각각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 피해액이 57억6천600만원이나 돼 신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

년간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으며 중기부 지원 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4개 지역이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 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45억 투자한 조형물 허파투성이 6면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12면
KIA, 정해영·최지민 복귀 '초읽기' 16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상점에서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10,923₩

OFF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23,573₩

문 닫고
냉난방하기
₩27,214₩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75,842₩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80,346₩

낮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9,874₩

개방형 냉방고
문 닫아 사용하기
₩161,618₩

승강기
격중 운행하기
₩32,89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OEN 한국에너지
 KOMIPO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KEIA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미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